

親日小說의 展開樣相

尹 政 憲*

〈차 례〉

- | | |
|---------------------|---------------------|
| 1. 序 論 | 2) 體制癒着型 小說 |
| 2. “積極의 御用小說”의 展開樣相 | 3. “消極의 時局小說”의 展開樣相 |
| 1) 戰爭鼓舞型 小說 | 4. 結 論 |

1. 序 論

1940년을 전후한 日帝末期의 韓國文學을 우리는 흔히 暗黒期의 문학¹⁾이라 하여 아예 논급의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거나, 극히 固着的 視覺에서 裁斷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이 때의 作品이란 直接 日本戰爭協力을 위한 것이 아니면 檢閱이 通過되지 않는 時代에 있어 그 內容이 朝鮮語作品이란 별써 眞正한 朝鮮文學과는 距離가 멀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一九四一年末부터 一九四五年까지의 約五年間은 朝鮮新文學史上에 있어서 羞恥에 찬 暗黒期요 文學史的으로는 白紙로 돌려야 할 부랑크의 時代였던 것이다.²⁾

*경북산업대학 교수

1) 흔히 일제말기의 문학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암흑기”란 수사어는 백철(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사, 1950)에 의해 처음 사용된 후 이 시기 문단을 상징하는 전범적 용어로 굳어져 왔다.
2) 白鐵,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백양당, 1950), pp.398~399.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의 소산으로, 당대 우리문학에 대한 自嘲의 偏見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간 대부분의 이시기 문학연구 -특히 소설에 있어- 가 별다른 실증적 탐색 없이 척박한 시대 환경을 문제삼아 일방적인 재단을 일삼아 왔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제 이같은 선입관은 우리 문학사의 일관성있는 체계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걸림돌인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親日小說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다 엄정하고 치밀한 토대 위에서 새롭게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31년 9월, 滿洲事變 이후 수립한 만주국을 교두보로 대륙침략의 야심을 불태우던 日帝는 1937년 中日戰爭을 일으키더니 1941년에는 마침내 태평양전쟁으로 비화시키면서 군국주의적 색채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와 중에서 한국은 국토 전체가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전락하고 민족의 주체성은 더할수 없는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民族文化抹殺政策에 의한 각종매체의 폐간, 한글 사용의 규제 및 일어 상용의 강요, 문단의 어용화 등 소위 “皇民化”로의 길을 밟게 되는데, 특히 1941년 이후 <조선문인협회>, <조선문인보국회> 등과 같은 어용문인단체에 의해 주도된 문단은 일어 창작의 굴레 속에 황도문학의 기치를 내걸고 암흑의 극으로 치닫게 된다.

민족지 <朝鮮日報>과 <東亞日報>의 폐간 직후인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 발표지는 <國民文學>으로서, 그 이전의 친일잡지였던 <인문평론>을 비롯한 21종의 잡지를 통합해 출발한 이 잡지는 연중 단 2회의 한글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어판이었고 모든 용어도 일본어로 통일되었다. 결국 친일적 전시문학을 주도했던 <국민문학>에 의해 범주화될 수밖에 없었던 소설문단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형적 양상을 펼쳐 보이게 된다.³⁾

물론 이 시기의 소설이라 하여 모두가 친일소설로 단정할 수도 없고,⁴⁾ 특히 일어로 발표된 작품이더라도 전시의 국책과 상관없이 예술적 척도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있는⁵⁾ 등, 이 시기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도 前言한 바처럼 이제 단순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보다 성숙된 의미확장을 할 때가

3) 송민호, 『일제말 암흑기 문학 연구』 (새문사, 1991), pp.28~29.

4) 근자에 辛熙敎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일제말기소설연구』, 고려대, 1992. 6)에서 이 시기 소설을 친일어용소설과 순수지향의 소설로 양분함으로써 그간 암흑기란 구호 속에 일방적으로 도식화되었던 이 시기 소설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킨 바 있다.

5) 김윤식, 『일제말기 한일문단의 관련양상』,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일조각, 1974), p.112.

된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적 상흔 속에서 파생되었던 친일소설의 전개양상을 그 附和雷同의 程度에 따라 “적극적 양태의 어용소설”과 “소극적 양태의 시국소설”로 각각 命名해 정리해 봄으로써 암흑기 친일소설에 대한 막연한 심정적 평가에 실증적 단서를 제공하고 이 시기 소설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2. “積極的 御用小説”의 展開樣相

이 시기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戰爭이었다. 따라서 전쟁수행과 관련된 제재들이 친일어용소설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선 편의상 전쟁수행상의 프로파간다적 색채와 식민지 일반정책의 호응 여부에 따라 소위 “전쟁고무형의 소설”과 “체제유착형의 소설”로 갈라 본다.

1) 戰爭鼓舞型 小説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38년 2월에 공포되었던 志願兵制와 전쟁의 막바지인 1943년 3월에 공포된 徵兵制는 日帝의 皇民化政策 앞에서 束手無策으로 끌려 다녀야 했던 친일작가들에겐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되었다.

鄭人澤의 〈돌아보지 않으리〉(국민문학, 1943. 10, 日文:かへりみはせじ)는 징병을 독려한 대표적 작품이다. 당시 軍 보도부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한 전형적 어용소설인 이 작품은⁶⁾ 그 표제부터가 일단 출전하면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詩句의 일부이다.

일본을 위해 결사적 충성을 다짐하는 出征志願兵, 賢이 戰地에서 후방의 흠여머니와 남동생에게 부친 편지글의 형식을 취한 이 작품은 소설의 본질적 요소인 서사적 사건의 전개보다는 전시 병사의 충성구호를 여과없이 흘려보내는 캠페인적 형식에 치우쳐 있다.

6) 송민호, op.cit. p. 199.

어머니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 나가 영광스럽게 죽는 것, 그것은 보람있는 나라에 생을 누린 남자로서는 무엇보다도 자랑스런 일이요,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머니에 있어서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탄식할만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는 커녕 그 이상 없는 명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에서는 전사한 유족의 집을 찾아 갔을 때, “이번에 큰 공을 세우고 명예의 전사를 하셨다니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싸움터에 나가 죽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광스런 일로서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하는 대신에 축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⁷⁾

뿐만 아니라, 주인공 현은 후방의 남동생에게도 장차 징병에 응해 자기와 같은 決死報國의 충성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 고등농림학교에 진학했다가 지원병에 입대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저학력자 아닌 고학력자 출신 지원병인 것이다. 이는 신회교의 지적⁸⁾처럼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賢이 전장에서 보낸 편지에는 생명의 마스코트인 센진바리(千人針) 및 위문품을 받는데 대한 감사의 인사와 1년 3개월간 소식을 전하지 못한 연유가 서술되어 있다. 즉 전장에서 공을 세우지 못해 황은에 보답치 못한 부끄러운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뚜렷한 줄거리 없이 시국적 국가관에 편승한 주인공의 作爲의 思辨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머니에겐 아들의 전사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고 있고,⁹⁾ 동생에겐 한국인을 일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皇

7) 송민호, op. cit., 부록편, p.253.

8) 즉, 일제의 전시정책(지원병제)에 고학력자를 많이 흡수하기 위한 宣傳의 性格을 띤 것인데, 징병독려와 관련해 이 소설이 지니는 의미를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①주인공의 고학력설정으로 인한 고학력자 지원병 증가 기대. ②강한 군인의 강한 어머니상 창출 ③징병에 응하는 병정의 결사보국의 자세 확립. ④징병응소는 천황에의 보은임을 강조. : 신회교, [일제말기 소설 연구](고려대, 1992.6), pp. 67~71 참조.

8) 1939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주한일본군사령부 보도부장 鄭勳소좌의 담화문 「반도부인에게 고함」에는 자식을 전장에 보낸 한국 어머니들의 결연한 정신무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이 작품의 창작동인을 엿보게 한다. : 임종국편, 『친일은설선집』(실천문학사, 1987) pp.245 ~246 참조.

愿에 보답키 위해서라도 징병에 적극 호응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문인협회 주관의 현상당선 소설인 安東益雄(本名未詳)의 〈젊은 힘〉(국민문학, 1942. 5. 6합, 日文:若い力)은 당시 전문학교 재학생이었던 무명작가의 戰爭鼓舞型 소설이다. 歸郷志願兵 德次와 松峠里 부락 校長 牧野信一の 형상화되지 않은 언행을 통해 전쟁혼 고취와 소국민 연성에 주력하고 있는 이 작품 역시 소설적 구성이 극히 미약한 시국적 선전물에 불과하다.

德次는 전신체가 찌릿 찌릿 경련하며 생각할 사이도 없이 一死報國이라는 말을 마음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국가는 지금 나같은 청년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사보국의 각오가 있을 따름입니다.¹⁰⁾

지원병 훈련을 마치고 귀향한 德次를 중심으로 좌담회와 국어 강습회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4명의 지원병을 합격시킨다는 판에 박힌 줄거리는 어용소설의 상투적 계보를 잇기에 부족한 점이 없다. 德次가 출정하는 날 부락민이 총동원되어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묘한 흥분에 사로잡혀 설 새 없이 職域奉公을 부르짖는” 牧野¹¹⁾나 차 속에서 “나의 大君에 불리움을 받다—— 이제 가라 씩씩한 日本의 男子”라는 노래를 重唱하는 지원병들의 모습은 바로 일제의 전시정책에 방향감을 상실한 채 견인되어 나가던 당시 친일작가들의 자화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시국적 색채와 무관한 〈孟進士宅 慶事〉(국민문학, 1943. 4)로 주목을 끌었던 시나리오작가 吳泳鎮의 〈젊은 龍의 고향〉(국민문학, 1944. 11, 日文)은 태평양전쟁 당시 모 해병단에 대한 전문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특수잠항정을 타고 敵港에서 전사한 ‘이와사 나오히(岩佐直治)’의 부모에게 보내는 私信을 陣中 시나리오작가가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다.

10) 송민호, op. cit. p.105 재인용

〔原文〕: 德次は 全身體がびりとして思はず一死報國の言葉を心の中に叫びました。
國家は今私達のやうな青年を求めています。私は決死報國の覺悟があるだけです。
: 『국민문학』 (1942.5.6합)

11) 임종국,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83), p.438.

이 과업을 완수한 연후에 목숨이 다하거든 칭찬해 주십시오. 또한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이 생명이 다했다면 나오지의 영혼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헤아려 주십시오.

사꾸라가 저야 할 때 지는 거야말로

야마또의 꽃이라 칭찬할 수 있는 것을 몸은

비록 異域萬里 바다에서 진다 해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리 야마또 皇國을¹²⁾

결국 이 소설도 앞의 두 작품처럼 군국 일본이 조선청년을 세뇌해 심은 전시하 청년들의 결의가 남김없이 설파된 것으로¹³⁾, 징병응소 군인이 가져야 할 決死保國의 정신을 예외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香山光郎이란 창씨명으로 암흑기 문단을 횡행하던 대표적 親日知性人 李光洙의 〈봄의 노래〉(신시대, 1941. 9~)는 전시하의 군국주의적 생활양식의 장려를 통해 전쟁(聖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연재 앞머리에 장편으로 기획되었음과 작가의 국민적 정열이 넘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이 작품은¹⁵⁾ 황국신민으로 철저히 규격화된 출정 지원병 요시오(韓山李氏 牧隱의 後孫)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군국주의적 생활철학을 이광수 특유의 삼각애정 배경 속에 다루고 있다. 명문의 후손이면서도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애인 도시꼬를 버리고 구장의 딸 후미꼬와 결혼해야 했으며 그 아내의 불貞에도 아랑곳 없이 이 몸은 폐하께 바친 몸이라며 지원병의 각오를 되새기는 요시오는 당시 일제가 주문하던 황국신민의 전형적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을 고무, 찬양하며 시국에 편승하던 이러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전쟁현장의 사실감있는 묘사를 통해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소설내적 형상화를 일궈내지 못하고 극히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목적의식이 선행됨으로써 마치 시국구호가 담긴 연설문 내지 從軍檄文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12) 김병걸, 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 V.1 (실천문학사, 1986), p.343.

13) 송민호, op. cit., pp.100~101.

14) 신회교, op. cit., p.73.

15) 이광수, 〈봄의 노래〉, 『신시대』(1941. 9) p.215.

이런 의미에서 정인택의 〈鵬翼〉(조광, 1944. 6)과 이석훈의 〈하늘의 영웅〉(야담, 1942. 12) 등은 전쟁현장을 직접 배경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인택의 〈濃霧〉(국민문학, 1942. 11)와 南山壽의 〈한떨기 晩香玉〉(신시대, 1941. 1) 등의 작품은 후방의 비적토벌과 첩보전을 직접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용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현실감있는 소재 선택이 돋보인다.

한편 비련의 상처를 간직한 여인의 지원병훈련소 견문록을 서간체형식으로 그린 최정희의 〈野菊抄〉(국민문학, 1942. 11), 娘子關戰鬪에서 부상을 입은 조선인병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박계주의 〈乳房〉(조광, 1943. 2) 등은 군국주의가 지향하는 강한 어머니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징병제 실시에 감격하는 조선청년의 모습을 도식적으로 그리며 張赫宙의 〈새로운 출발〉(국민총력, 日文:新しい出發), 조선인 출정가정의 위문을 통해 銃後國民의 時局協力相을 강조하고 있는 金龍濟의 〈壯丁〉(국민문학, 1942. 2), 전시하 총력체제 속의 보도관계요원의 정신적 다짐을 그린 최재서의 〈報道演習班〉(국민문학, 1943. 7), 출정군인의 아내의 자세를 부각시킨 조용만의 〈森君夫妻와 나와〉(국민문학, 1942. 12) 등은 후방의 국민정서를 활용해 징병제와 관련한 전시시책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와 함께 이질적인 사상을 가진 형제간의 갈등을 침략전쟁의 합리화란 주제로 수렴하고 있는 정비석의 〈三代〉(국민문학 1942. 신년호)를 비롯해 新羅 元述郎의 사적을 소재로 침략전의 역사적 의미를 牽強附會하고 있는 역사소설인 최재서의 〈非時の 꽃〉(국민문학, 1944. 8, 日文:非時の花)과 이광수의 〈원술의 출정〉(신시대, v. 6, 日文:元述の出征) 등의 작품을 통해서도 전쟁혼을 고무하던 당시 암흑기 문단의 편린을 생생히 엿볼 수 있다.

2) 體制癒着型 小説

일제말기의 작가들에게 있어선 전쟁수행을 위한 戰時施策 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는 皇國臣民으로서의 一般施策들을 어떻게 作品化하는가 하는 것이 항시 크나큰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작품들 속에는 內鮮一體를 위한 총독부의 상시정책들이 갖가지 소설적 포장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광수의 〈그들의 사랑〉(신시대, 1941. 1~3)은 韓日間の 生活方式의 對比를 통해 내선일체를 강조한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이다.

가난한 고학생 이원구가 국학자 니시모도박사의 아들인 다다시의 호의로 그 집에서 가정교사로 기숙하게 되면서 日本精神에 눈 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니시모도의 회상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는 첫째로 일본이 내 조국인 것을 깨달았소. 나는 지금까지 두 마음을 가지고 오던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일본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소. 지금에 와서 조국에 대하여서 반항하는 감정을 털끝만치라도 우리의 가슴에 남겨두는 것은 다만 국가에 대하여서 비국민적일 뿐더러 조선사람에 대하여서 큰 불행을 주는 일이라고 믿소.”¹⁶⁾

니시모도집에서 기거하는 동안 일본인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한없는 경의감을 품게된 이원구(牧原勝治)가 조선인 학생들 앞에서 강변하고 있는 그릇된 民族觀은 상대적으로 조선인의 正體性을 부정하고 이를 경멸, 비하하는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충격의 도를 더하게 한다.

조선인의 가정생활이 방만하고 무질서하며 도덕의 정도는 야만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인들은 시간을 잘 지키고 정숙하며 예의 바르고 매사에 열심이며 청결한 문화인이라는게 이원구의 兩國文化論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주인공이 일본인의 생활태도에 감명받아 황민의식을 다지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통해 생활태도의 개량이 내선일체의 지름길임을 천명하고 있는 啓導用作品이다.¹⁷⁾

같은 작가의 〈가가와 교장〉(국민문학, 1943. 10, 日文:加川校長) 역시 일본인에 대해 한국인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키면서 민족적 굴욕을 유발시키는 작품으로, 작가의 분신을 소설화한 듯한 착각이 드는 작품이다. 시골의 신설 공립중학교 교장 가가와(加川)가 동족인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성을 고매한 일본인의 인성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모범적인 皇民相을 펼쳐보인다는 내용의 이 소설은 그 작위적이고 도식적인 인물설정이 프로파간다(propaganda)문학의 교본을 보는 듯하다.

16) 이광수, 〈그들의 사랑〉, 『천일문학작품선집』 V.1(실천문학사, 1986), p.59.

17) 신회교, op. cit., pp.62~64.

—— 교원 노릇을 15년이나 하고보면 일생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다. 교원생활이란 가난뱅이 팔자라고 말하지 않는가. 가가와의 고등학교 동창생 중에는 벌써 친임관(親任官)이 된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가가와는 지금 겨우 고등관 5등의 중학교 교장으로서 명예도 재산도 없는 것이다.—— S교에 있었으면 지위나 명망높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것이 소위 출세의 실마리로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가가와는 K교의 교장으로 왔던 것이다. 거기에는 천황의 부르심이라는 마음이 주가 되었지만 자기가 설계한 대로 제자를 만들어보겠다는 소원 역시 절실했던 것이다.¹⁸⁾

기무라의 정직스러운, 자기와 같이 영리하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얼굴을 생각했다.

—— 그것이 한없이 가가와의 마음에 들었다.가가와와 지론으로서는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약아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조선사람이 그러해서 조선사람의 아이들 중에는 지나치게 약아빠진 사람이 많다. 가가와에게는 바보스런 얼굴이 좋았던 것이다.¹⁹⁾

인용에서 보는 바처럼 가가와란 인물의 敎條的 固着性, 韓日間の 國民性에 대한 다분히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대비 등 소설적 형상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치적 군더더기들이 이 작품을 친일어용소설로 범주화시키는데 주저치 않게 하고 있다.

한편 구한말의 친일 개화당 정치인이었던金玉均의 역사적 행보를 친일적 관점에서 부각시켜, 내선일체의 체제 홍보에 활용하려 한 역사소설들이 이 시기에 또한 발표되어 주목을 끈다.

신인추천작가로 투고한 南川博의 〈김옥균의 사〉(국민문학, 1944. 3, 日文: 金玉均の死)는 갑신정변에 실패해 일본에 망명했던 김옥균이 새로운 정치구도 속에 몸부림치다 상해에서 민비의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당하기까지의 정치적 일대기를 소설화한 작품이다.

18) 〈가가와 교장〉, 송면호, op. cit, p.231.

19) Ibid, p.243.

일본과 조선과 청국 이 삼국이 완전히 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영원한 동양 평화가 확립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²⁰⁾

김옥균의 政治觀을 恣意的으로 屈折解析하여 時局趣旨에 맞춤으로써 역사적 개연성을 針小棒大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용만의 〈배 안에서〉(국민문학, 1942. 7)는 갑신정변의 실패 후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유혁로 등 개화당 수뇌들이 한 의협심있는 일본인 청년 선장의 결단으로 사대당의 추격을 피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역시 역사적 사실을 필요에 의해 작위적 시각에서 허구화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부모가 점찍은 여성과의 결합을 거부하고, 동경교외 여관의 일본인 하녀에게 애정을 느끼는 한국인 청년의 과장된 정서를 통해 韓日民族間의 紐帶를 강조하고 있는 鄭人澤의 〈扶桑館의 봄〉(춘추, 1941. 3), 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更生의 의지를 불태우는 한 청년의 심리추이를 통해 내선일체의 절박한 의미를 강조하는 崔秉一의 〈本音〉(국민문학, 1943. 11), 불구처녀의 체제순응적인 모범생활을 통해 시국적 의미를 되짚게 하는 金士永의 〈幸不幸〉(국민문학, 1943. 11), 나태한 정신에 물들어 있던 부인의 시국인식과정을 그린 최정희의 〈薔薇의 집〉(대동아, 1942. 7), 회사중역의 딸을 마다 하고 몸매이 차림의 여인을 배필로 맞는 인텔리청년의 시국관을 그린 조용만의 〈冬簾〉(춘추, 1944. 2), 저수지 개조공사에 나선 한 건설기술자의 결연한 의지를 그린 李北鳴의 〈氷原〉(춘추, 1942. 7), 방공감시원으로 체제에 순응하게 된 문인의 감회를 다룬 박계주의 〈오리온 성좌〉(조광, 1943. 3), 금광의 생산현장을 배경으로 시국시책을 부각시키는 석인해의 〈歸去來〉(춘추, 1943. 6),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을 養蜂에 매달리는 한 여성의 적극적 의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尹白南의 〈벌통〉(신시대, 1945. 1), 만주개척이민의 수난사를 다루는 가운데 일본을 광명과 은혜의 나라로, 중국을 미개와 원수의 무리로 부각시키고 있는 申曙野의 〈피와 흙〉(춘추, 1943. 4), 비적의 습격 등 온갖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日滿兩國旗의

20) 남천박, 〈김옥균의 사〉, 『국민문학』(1944. 3)

〔原文〕日本と朝鮮と清國この三國が完全に一體となつた時こそ永遠の東洋平和が確立できるものと信じていた.

가호 아래 부락재건에 성공한다는 만주 개척이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룬 松山實의 〈寒燈〉(춘추, 1943. 4) 등의 작품들에서 당시 日帝體制에 癒着하는 御用意識들을 엿볼 수 있다.

3. “消極的 時局小說”의 展開樣相

이 시기의 시국과 관련된 작품들 중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선, 당시의 고압적 분위기 속에서 수동적으로 창작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소설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²¹⁾

어두웠던 시절의 이러한 고충은 桂鎔默의 다음과 같은 회고를 통해서 더욱 생생히 느껴진다.

이 時期에 있어서 勤勞精神을 鼓吹한 農民物 같은 것이, 全然 이 方面에 는 붓을 대지 않던 몇몇 作家에게서 製作이 되었다. 내 自身 것으로 말하더라도 〈시골老婆〉, 〈苗裔〉, 〈不老草〉 같은 것이 그것으로, 글을 아니 쓰게는 못되고, 그렇다고 뜻에 없는 붓대는 놀릴 수가 없고 해서 勤勞精神으로 協力を 假裝하자는데서 이런 作品들을 썼다.²²⁾

본인의 지적처럼 계몽물의 〈不老草〉(춘추, 1942. 6)는 등장인물들을 근로와 영농의 현장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근로정신을 고취하고자 한 작품이다. 다리에 풍을 맞은 할아버지의 농사욕과 손자의 농사일 흥내내기를 통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목가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제의 시책에 부합되게 작품을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²³⁾

당대 작가들의 이러한 타율적이고 강요된 현실해석에서 기인한 지성인으로서의 딜레마는 지식인의 전향을 다룬 백철의 〈展望〉(인문평론, 1940. 신년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1) 송민호는 이처럼 進退兩難의 궁지에서 강요당해 써진 듯한 작품들을 鍍金된 御用的 문학으로 이름하여 분류하고 있다. : op. cit, pp.129~138.

22) 계몽물, 암흑기의 우리문단, 『현대문학』 통권26호(1957. 2), p.55.

23) 신회교, op. cit, p.85.

여기서 나는 비로소 자기로 돌아와 고요히 지금까지의 행위를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차차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밤이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것은 자기의 근년의 생활에 대한 하나의 고민이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세상에 흔히 있는 인테리들의 사상적 고민과는 類가 다르다. 청년에게 있어 그 정치적인 사상이 옳고 그르고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었다.²⁴⁾

식민지 지식인의 현실속에서의 갈등은 李石薰의 〈고요한 폭풍〉(국민문학, 1941. 11, 日文: 靜かな風)에 이르러 더욱 극명하게 구체화된다. 한 지식인변절자(소설가 박태민)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끊임없는 변민이 당시 문단 시대상 속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작품은 갈등끝에 변절하거나 적어도 그 아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당시 문인들의 처절한 양심보고서의 성격을 띤다.

이 땅에서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폭풍의 시대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시대를 호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소승적인 민족적 입장을 일단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높은 대승적 지성과 예지가 필요한 것이다. 허나 박태민은 자주 깊은 회의 속에서 방황했다.

의식은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정처없이 거리를 돌아다닌다. 친지를 만나기도 하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다. 사상의 핵심을 벗어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다.²⁵⁾

이 소설의 주인공 박태민처럼 노골적인 친일의 길로 들어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리 조여오는 시국의 압력을 피해 갈 수도 없었던 당대 대부분 문인들의 절박한 입지가 결국은 피동적으로나마 변절하고야마는 우울한 자화상이 되어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비교적 시국적 색채가 없이, 한국인 신문기자 顯과 일본인 여급 阿佐美

24) 백철, 〈전망〉, 『인문평론』(1940. 1), p.206.

25) 이석훈, 〈고요한 폭풍〉, 송민호, op. cit, p.263.

의 사랑의 우여곡절을 다루고 있는 이효석의 〈아자미의 障〉(국민문학, 1941. 11)은 편집후기에서의 해설처럼 내선일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시책선전이라기 보다는 국민감정을 초월한 두 남녀의 순수한 애정 전개양상에 비중을 두어 분위기를 윤택시키면서 부수적으로 내선일체란 시국의 빌미에 귀결되도록 의도된 느낌을 주고 있다.

조용한 거리를 빠져나와 둘은 차츰 행인들이 많은 덕수궁 안으로 들어섰다. 하얀 길 양편으로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 나뭇잎들이 싱그럽고, 넓은 잔디는 아직 초록 기운에 선연하게 젖어 있었다. 못의 분수는 차갑게 햇살에 번쩍이고 그 뒷 배경의 白堊 박물관으로하여 냉랭하고 조용해 보였다. 아자미의 청초한 자태는 그 뜰 속에서도 더 한층 돋보이는 듯 하여 현은 내심 자랑스런 생각까지 들어 한점 얼룩조차 없는 사랑의 만족감에 흠뻑 젖어 있었다.²⁶⁾

인용에서 보는 바처럼 두 사람의 애정은 국적과 신분의 이질성을 초월한 순수한 의기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 앞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國籍의 相違에서 오는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文化的 差異를 극복해야 할 원초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민족의 여급출신 여인을 머느리로 맞지 않으려는 식민지 명문가의 완강한 반대는 이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크고 험거운 장벽이다. 20년 가까이 관직에 몸담았던 현의 아버지가 머느리로 내정한 명문가의 딸 麗姬가 등장하자 아자미가 그녀의 고향 구마모도(熊本)로 잠적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사랑은 未完의 상태로 남는다. 작품 속에서 다소 과장되게 묘사된 두 사람의 兩國文化에 대한 友好的 認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의 사랑에 결론을 유보시킴으로써 적극적 시국동참에서 벗어난 작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문학교 동기생인 세 인텔리 여성의 이야기에 몰자절약 시책을 결들인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손들〉(조광, 1942. 1~1943. 1), 빈한한 식민지 가정의 생활열정을 勤勞保國의 일상화로 포장한 이북명의 〈형제〉(야담, 1942. 3), 겨울여정의 승객들을 통해 전시하의 고난 속에서도 내핍을 강조하는 정비석의 〈寒月〉(국민문학, 1942. 2),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26) 이효석, 〈아자미의 障〉, 송민호. op. cit. p.218.

도 농산물증산 시책에 등한하지 않는 순박한 농부를 그린 이무영의 〈文書房〉(국민문학, 1942. 3)과 농촌 억척과부의 눈물겨운 榮農意志 속에 식량 증산 시책을 내비치고 있는 〈母〉(情熱의書, 1944. 4), 土幕民의 삶을 통해 영농의지를 조명한 박연희의 〈秋夕날〉(야담, 1944. 12), 선구적 만주개척 이민의 정착과정을 통해 이주민의 의지와 일제시책을 결합하려 한 안수길의 〈牧畜記〉(춘추, 1943. 4)와 〈圓覺村〉(국민문학, 1942. 2), 畫家志望生인 조선인 청년과 일본여인의 애정행각을 내선일체의 문제로 포장하려 한 한 설야의 〈血〉(국민문학, 1942. 1), 서울 변두리 빈민의 생활상을 愛國班의 활약상과 함께 실감나게 묘사한 정인택의 〈淸涼里界限〉(국민문학, 1941. 11), 등의 작품들에서, 소설적 공간 속에 형식적으로나마 시국의 문제를 포착해 보려는 당대작가들의 역력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4. 結 論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친일소설의 전개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시기의 가장 지대한 관심사가 戰爭遂行이란 긴박한 과제에 맞물려 있었던 만큼 대부분의 친일어용소설들이 戰魂을 鼓吹, 鼓舞시키며 民心을 統制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정인택의 〈돌아보지 않으리〉, 안동익웅의 〈젊은 힘〉, 이광수의 〈봄의 노래〉 등 일련의 작품들에서 皇軍의 決死保國 精神과 戰時 軍國主義의 生活樣式이 극도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殖民地 經營策略과 관계된 소재들도 병행하여 작품 속에서 다뤄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內鮮一體를 골자로 한 체제유착 성향의 작품들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광수의 〈그들의 사랑〉과 〈가가와 교장〉, 남천박의 〈金玉均의 死〉 등 일련의 작품들에선 민족적 정체성을 遺棄한 體制癒着의 표본을 대할 수 있다.

한편 당대의 고압적 시대풍토 속에서 수동적으로 창작되어진 작품들도 상당수 눈에 띄어 작가들의 고충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거의가 당대의 생활상을 시국적 문제와 의도적으로 결부시킨 것들이었다. 이석훈의 〈고요한 폭풍〉, 백철의 〈전망〉, 이효석의 〈아자미의 장〉, 계용묵의 〈불로초〉, 안수길의 〈원각촌〉 등 일련의 작품들은 창작에의 욕구와 시대적

분위기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친일소설을 바라보는 시각도, 작품의 제재 그 자체보다는 우회적 창작배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여백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보다 전향적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시기 대부분의 작품들이 문자 그대로 친일어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일부 작품의 구조적 작태는 그 附日阿諛의 도가 운위의 정도를 넘어선 감이 있다.

그러나 “일제말기 소설=친일소설”이라는 先入觀的 裁斷에서 탈피해 보다 객관적 작품 검증을 통해 작품의 내재적 진실을 밝혀내는 동시에, 그 정신 사적 기반을 추출하기 위해 당대의 문단 내외적 정황을 주도면밀히 反芻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테면 친일작가로 膾炙되는 소설가의 작품이라 하여 무조건 어용소설로 몰거나(실제로 이 시기 소설 중, 동일작가의 작품이라도 어용성을 띤 것과 순수문예물의 성격을 띤 것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일어로 씌어진 작품이라 하여 내용여하에 상관없이 매도하거나(당대여건상 일어난 매개수단을 사용했다 라도, 언어를 초월해 우리 문학의 독자적 저변을 고수한 작품도 눈에 띈다) 혹은 당대의 시책을 작품배경으로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하는(어차피 문학은 시대상의 반영이므로, 당대 시책이 작품배경으로 다뤄진 것 자체를 문제삼기보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등등의 사례는 지극히 便宜의인 思辨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일제 말기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다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인 해안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활발해질 때, 비로소 친일소설의 오명을 덮어 쓰고 암지에 묻혀있던 작품들의 굴절된 진가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설사의 온전한 의미망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